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결과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제1호] 2023년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보고의 건

[제2호] 2022년도 인권경영 추진 결과 보고의 건

[제3호] 2023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202. 3. 14.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관리실)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상정안건

[제1호] 2023년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보고의 건

- 재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2022.12.7.)에 따라 2023년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외부위원 위촉 보고

[제2호] 2022년도 인권경영 추진 결과 보고의 건

○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화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인권경영위원회 개최(1회)(“22.1)
- 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22.4)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22.10~12)
- ‘동북아역사재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및 <인권정책선언문> 개정(“22.12)

○ <인권정책선언문> 정비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

-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에 의거 명칭을 ‘인권경영선언문’에서 ‘인권정책선언문’으로 개정
- 기존의 9개 항에서 선언 내용에 ‘직장내 괴롭힘 등 근절’, ‘신속한 구제와 재발 방지 내용 추가’하여 11개 항으로 개편
- <인권정책선언문> 유관부처 및 기관 배포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22.10.22~12.22)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행 및 개선을 통해 인권경영 내재화 단계(2023~2025) 추진 모색

※ 붙임1. <동북아역사재단 인권정책선언문>

붙임2.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약본

[제3호] 2023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 추진목적

- 인권경영 실천 강화로 사회적 책임 완수
-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
- 인권 존중 조직문화 확산

○ 2023년 인권경영 중점 추진 계획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내실화(연1회→2회)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하반기)
- 인권경영 교육(인권경영 담당자, 점검대상자, 임직원 교육 실시)
- 인권관련 설문조사 및 인권침해 모니터링 실시
-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교육과 피해신고 홍보 강화
- 인권경영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환류

○ 2023년 인권경영 실적 보고서 작성 및 공개(2024.2)

※ 별첨1. 2023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1부. 끝.

[붙임1] 동북아역사재단 인권정책선언문

우리는 동북아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 개발을 수행하여 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성원, 협력업체와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에서 재단이 준수해야 할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 정책선언문을 선포한다.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동북아역사재단은 UN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2. **고용과 인사 상의 비차별** 동북아역사재단은 임직원의 고용, 승진, 전보, 교육 등에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윤리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동북아역사재단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4.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동북아역사재단은 어떤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으며,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5. **산업안전의 보장** 동북아역사재단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및 업무 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6. **사업파트너 관리** 동북아역사재단은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7.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동북아역사재단은 사업 활동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환경권 보장**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9. **개인정보 보호** 동북아역사재단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10. **인권존중 직장 문화 조성** 동북아역사재단은 근로자가 자율적이며 평등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을 근절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11. **신속한 구제와 재발방지** 동북아역사재단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제절차와 재발방지 교육 및 시정조치로 인권존중의 직장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인권정책선언에서 밝힌 인권경영 방침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임직원 일동

[붙임2]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약본

1. 개요

- 동북아역사재단 2022년 인권영향평가
- 실시기간 : 2022.10.22.~12.22
- 수행기관 : 김철홍 박사(현 인권교육연구소 소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 인권영향평가 대상
 - 재단 경영 관련 인권경영 여부(10개 분야 115개 지표)
2021년도의 10개 분야 101개 지표에서 14개 지표를 추가하여 10개 분야 115개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①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②고용상의 비차별, ③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④강제 노동의 금지, ⑤아동노동의 금지, ⑥산업안전 보장, ⑦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⑧지역주민의 인권보호, ⑨환경권 보장, ⑩고객인권 보호
 - 주요사업(독도체험관) 인권경영 여부(2개분야 8개지표)
2021년과 동일하게 재단 주요 사업 5대 영역 중 '독도체험관'을 평가 분야와 지표로 설정하여 평가
① 관람객의 인권보호, ② 독도체험관 업무종사자의 인권보호

2.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 조치 추진함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기반 개선으로 인권보호에 긍정적 영향
 - 기관운영평가의 10개 분야 중 5개 분야(고용상의 비차별,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지역주민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에서는 부정적 평가 "0"
 - 설문결과, 인권친화 문화 조성에 긍정평가 71.8%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4%
 - 인권경영체제구축,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고객인권 보호 등 5개 분야의 19개 지표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

3. 기관운영 세부 권고사항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인권경영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인권경영 수행 부서와 모니터링 부서의 분리 필요. 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단의 적극적인 노조 건의사항 검토 필요
- 강제 노동의 금지: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경영 리플렛 및 사업 매뉴얼 보완을 통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노동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필요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인권경영 실천 지원 및 관리·감독에 대한 보완 필요
- 고객보호를 위한 제도준수: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업무담당부서와 담당자의 명확성 필요